



영광 불갑산 일원은 사시사철 다른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불갑산이 품은 사찰인 불갑사는 법성포를 통해 백제에 불교를 전래한 인도승 마라난타 존자가 최초로 세운 절로 알려져 있다. 봄에는 불갑사 가는 길에 화려하게 핀 벚꽃길, 여름에는 붉은 꽃잎 휘날리는 배롱나무 꽃길, 가을에는 불갑산을 온통 붉게 물들이는 상사화와 단풍, 그리고 겨울에는 꽃이 진 후 피어난 푸릇푸릇한 상사화 잎과 대비를 이루는 하얀 눈이 쌓인 불갑산 등 계절마다 전혀 다른 독특한 매력으로 다가오는 곳이다.

3년 만에, 꽃길만 걷자



매년 9월이면 불갑산상사화축제가 열리는 상사화 군락지가 붉은 물결로 장관을 이룬다. <영광군 제공>

제22회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16~25일 불갑산 일원서 개최 특산물에 숨어있는 반지 찾기·미디어파사드·달밤야행 등 다채

영광군은 매년 9월 상사화 개화시기에 맞춰 상사화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상사화 축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9월이면 밀려드는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최근 5년 동안 문화관광 육성축제에 선정되고 전라남도 대표축제 4회 연속으로 선정되는 등 꾸준히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축제이다. 올해 22회를 맞는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는 '상사화 붉은물결, 청춘의 사랑을 꽃피우다'라는 주제로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불갑사 관광지 일원에서 열린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3년만에 개최되는 올해 축제는 관광객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기간을 기존 7일에서 10일로 연장했다. 기존 프로그램들은 외형보다 내실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야간에 관광객의 눈길을 끌 수 있고 상사화의 꽃말인 사랑을 부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했다. 16일 주민 참여 행사인 사랑의 연줄 드리우기 행사를 시작으로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걷는 상사화 꽃길 걷기와 기념식을 통해 본격적인 축제의 서막을 알리고, 박진도·노라조의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이어 축제 기간동안 상사화 가을음악회·지역 가수 페스티벌 등 공연행사, 상사화 꽃맵시 선발대회·군민 가요제·다솜 상사화 가요제·대학

가요제 등의 경연행사, 상사화 소원등·상사화 SNS 사진인화·상사화 결혼식·강향의 날 선포식 등 각종 문화 행사 및 각종 전시·체험 행사가 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야간프로그램으로는 상사화 달빛야(夜)행을 도입해 달빛과 별빛이 가득한 가을밤 저녁에 연등을 들고 꽃길을 걸으며 불갑산의 은은한 정취를 느끼게 하고 관광객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 상사화 미디어파사드 프로그램을 통해 축제장 내 빛과 프로젝터를 활용한 상사화 영상 상영으로 상사화를 알리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가미하여 관광객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자 한다. 축제장을 방문한 커플들이 직접 참여해 영광 특산물에 숨어있는 반지를 찾는 커플게임을 운영해 도입으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체험을 통해 상사화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할 계획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3년만에 개최되는 축제인 만큼 상사화축제 추진위원회와 영광군이 불철주야 머리를 맞대어 최고의 축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가족·친구·연인과 함께 붉은 빛의 사랑이 살아 숨쉬는 상사화 축제장에 방문하여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불갑사 뒤덮은 붉은 꽃 '상사화'에 얽힌 사연은

경운 스님·인도 공주의 애절한 사랑 '이룰 수 없는 사랑'으로 꽃피우다

잎과 꽃이 결코 만날 수 없다하여 '이룰 수 없는 사랑'이란 꽃말을 가진 상사화(꽃무릇). 수선화과의 여러해살이 식물로서 꽃과 잎이 서로 달리 피고 지는 모습이 인간세계에서 서로 떨어져 사모하는 정인들과 같다하여 붙여진 고유 이름이다. 다른 말로는 석산이라고도 한다. 꽃무릇으로도 불리는 상사화는 산기슭이나 풀밭에서 군락을 이루며 사찰에서 심기도 한다. 어느 꽃이든 꽃말은 슬프고 아련한데 이 꽃은 흔하지 않게 남자가 여인을 못 잊어 병에 걸린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다. 불갑사에도 상사화와 관련된 설화가 전해진다. 불갑사에서 수행하던 '경운'이라는 스님이 불갑사를 장건한 마라난타 존자의 고향인 간다라 지역으로 유학을 떠난다. 스님은 법회에서 만난 간다라 지역 규산 왕의 공주와 서로 첫눈



에 반하게 된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스님을 추방하게 되고 공주는 '내세에서라도 사랑을 맺자'며 작은 화분에 참식나무 한 그루와 작은 씨앗을 선물로 주었다. 불갑사로 돌아온 스님은 '같이 있어도 같이 하지 못하듯 함께하지 않아도 같이 있음'을 되뇌면서 나무 아래서 열반에 든다. 9월이 되자 스님이 정성껏 길렀던 참식나무 밑에서 꽃이 피어나는데 잎과 꽃이 서로 만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스님들은 경운 스님의 사연을 떠올리면서 상사화라 했다고 한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그린알로에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